

지역 소식 통

정읍시 학교밖청소년
39명 검정고시 합격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한 학습 노력과 시의 맞춤형 지원 덕분에 2025년 제1회 검정고시에서 87%에 달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 5일 실시된 검정고시에 정읍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 45명(고졸 42명, 중졸 3명)이 응시했고 최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총 39명이 합격하며 값진 성과를 올렸다.

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해 매년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검정고시 대비반, 기초학습반, 1:1 학습멘토링을 비롯해 진로·진학 멘토링, 무료 온라인 강의와 교재 지원 등 다방면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인재양성과 관계지는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검정고시 대비반과 학습멘토링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소방서, 상반기 수난
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고창소방서는 지난 22일, 고창읍 노동리에 위치한 노동저수지 일원에서 2025년 상반기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을 앞두고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구조대원의 인명구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구조대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중 수색 및 인명 구조 절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 앞서 고창소방서 구조대 사무실에서 사전 이론 교육이 실시됐으며, 현장에서는 △수난사고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 △수난구조장비 사용법 △수중 통신장비 활용 △내수면 수중 인명구조 및 탐색·인양 등의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는 드론을 이용한 수상수색 및 수중영상 탐색장비 등 다양한 구조장비가 동원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사업 본격 시작

LH 공동시행 협약, 터미널 맞은편 주차장 부지에 210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

교통·주거·청년창업 등을 엮은 고창의 중심지 재편이 본격 시작됐다. 노후화와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고창버스터미널이 2년 뒤(2027년 말) 시립과 돈이 모이는 혁신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26일 현재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지난 2일 터미널 건립을 위해 건축설계공모가 공고되어 여러 설계사가 응모 접수한 상태다. 6월 중 당선자가 결정되면, 본격적인 건축설계가 시작된다.

또한 임시로 사용하게 될 터미널은 고창읍 목화예식장과 농협하나로마트 사이에 마련된다. 현재 차량대기공간과 간이매표소, 대합실 등의 공사가 진행중으로, 7월 본격 운영을 준비중이다.

동시에 터미널 철거공사도 시작된다. 지난 5월12일 터미널 뒷상가에 대해 건축심의가 완료되어 6월 중 착공될



예정이며, 임시터미널 운영에 맞춰 터미널 매표소건물 또한 해체계획서를 작성중이다. 터미널 뒷상가 철거 공사 중 먼지와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가림막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LH공사 역시 맞은편에 주차장 부지에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고창군과 6월 중 공동시행협약이 예정돼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

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급면적도 다양화(36㎡(16평), 46㎡(20평), 55㎡(23평), 84㎡(32평)할 계획이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는 2022년 12월 군 단위에선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다. 사업비는 1777억원이다. 고창군이 추진하는 단일사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26일 출포만 갯벌 일원에서 군과 부안해양경찰서,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해바다 블루카본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서해바다 블루카본 현판 제막식

부안군, 부안해경 등 4개 기관 참여 갯벌 생태복원 등 성과 공유

부안군은 26일 출포만 갯벌(면적 4.9㎢) 일원에서 군과 부안해양경찰서,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해바다 블루카본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4월 체결된 서해바다 블루카본 협약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협약연장에 따른 각 기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현판 제막식은 김익현 부안군수,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 권정록 포스코이앤씨 커뮤니케이션실장, 김성태 월드비전 ESG사회공헌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 현판 제막, 염생식물 파종 현장답사, 지역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서해바다 블루카본 사업은 출포만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해 해양생태계의 탄소 흡수력을 높이고 갯벌 보전 및 생태복원을 실천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칠면조, 해홍, 함초, 나문재 등 염생식물 83kg과 모종 500주를 갯벌에 식재한 결과 출포만 갯벌의 블루카본 생태계가 한층 풍부해졌으며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출포만 갯벌은 지난 2006년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2010년 랍사트협약 보존습지로 등재된 국제적 생태 핵심지로 환발농개와 저어새 등 100여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칠면조 군락은 해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익현 군수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NGO가 함께 힘을 모아 갯벌 보전 프로젝트를 현실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생태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ESG 실천을 위한 연대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주주의 주인은 시민... 투표로 뜻 실현해야”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 대상 투표 홍보에 힘써 줄 것”

정읍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 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이학수 시장은 26일 오전 영상 간부회의에서 “민주주의는 투표에서 시작된다”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 대상 투표 홍보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 사람의 투표를 공동체의 방향을 바꾸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 투표를 제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 홍보에 돌입했다. 주요 도로변과 청사 등에 투표 독려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농촌마을

에는 마을방송을 송출하는 등 시민의 생활 공간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 누리집과 공식 SNS, 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연령별·지역별 맞춤형 안내도 병행한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2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45개 투표소에서 이뤄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호남고 통학로 지중화 완료...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

정읍시가 호남고등학교 통학로의 전선과 전신주를 지하로 옮기는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하며 학생과 시민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선사했다.

이번 사업은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주변의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고 전신주와 통신주를 철거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호남고 정문에서 정주교까지 약 400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KT, 5개 통신사와 협력해 총사업비 약 28억원(국비 3억원 포함)을 공동 분담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는 지난해 5월에 착공해 약 1년간의 공사 끝에 완료됐다.

이번 사업으로 통학로이자 주민 생활도로인 해당 구간은 전신주가 사라진 거리로 탈바꿈했다. 그동안 전선은

로 가려졌던 시야가 확보되며 도시 경관이 한층 깔끔해졌고, 보도 폭도 넓어져 시민과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 보행환경을 동시에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국가하천 홍수취약지구 점검 실시

부안군은 지난 28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내 국가하천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북지방환경청 김효은 청장과 부안군 정화영 부군수가 직접 참석하여 여름철 홍수기를 앞두고 하천 인근지역 및 하천점용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급 보수 및 보강 계획을 점검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홍수취약지구 조사·지정·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환경부)에 따라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부안군이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점검을 실

시하여야 함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은 부안군의 홍수취약지구 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동행하였다.

점검 대상지는 국가하천인 동진면 동진리 소재 동진강 내 장대배수통문과 백산면 죽림리 고부내 내 중기양수장 일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점용공사 구역이다.

전북지방환경청과 부안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돌발성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